



## 보건복지부

### 권역응급의료평가 'A등급' 획득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조선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A등급은 물론 광주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1등,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국 446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안정성과 환자 중심성, 공공성 부문에 1위로 이름을 올려 조선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4시간 전문의 진료 및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의료진 보강은 물론 CT, MRI, 초음파검사기, 체온조절유도기 등 중증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한편 감염 및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구역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진료가 이뤄진 부분이 적극 반영된 결과이다.

배학연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며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응급의료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주로 발병하며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숨이 차고 만성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국 6470개의 의료기관을 실시한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안전보건센터' 재지정 (2018.01.01. ~ 2020.12.31.)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송한수)가 '제2기 어업안전보건센터'에 재지정 됐다.

제1기 어업안전보건센터('15~'17)는 전국 3개소(조선대병원, 부산백병원, 경상대병원)가 지정되어 어업인질환 및 업무상 재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선대병원이 재지정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

며, 향후 3년간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교육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어업안전보건센터장 송한수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이전 1기의 성과를 토대로 전남 도서지역 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질환 연구와 교육에 힘 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제2기 어업안전보건센터 워크숍 개최



1월 11일 신관2층 하중현홀에서 '어업안전보건센터 제2기 사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송한수)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대, 인재대 어업안전보건센터 관계자 및 전남도청 수산자원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농업진흥청,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센터별 제1기 성과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제2기 사업 활성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는 경상대병원과 인재대 부산백병원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2015년 6월 지정받아 어업인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18년도 지역의약품안전 센터' 재지정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권용은)가 '2018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재지정됐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사업은 해당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수집 및 검토하여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며,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과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약물부작용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및 상담을 제공하여 전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재선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하며 ▲안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지침 ▲항생제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 ▲소아환자 집중 모니터링 ▲식약처 지정품목 중 조선대병원 사용약물 집중 모니터링 ▲해외 의약품 안전사용 등 병원 내외 의약품 감시와 외부에서 센터로 보고된 약물부작용 수집 및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운영기간(2015년~2017년)동안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27개소에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에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성황리에 마쳐

▶ KBS교향악단과 개그맨 송준근의 진행으로 가슴따뜻한 공연

2월 2일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 공연을 시작하기 전 KBS소속 송준근 개그맨이 토요타 관계자와 함께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가졌다.

송준근 개그맨의 오프닝과 함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윤정씨의 'You Raise Me Up'과 KBS교향악단의 흥겨운 춤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공연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큰 호응과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앙코르로 화답했다.

이날 소아병동에서 함께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콘서트를 관람한 한 소아환자의 어머니(35)는 "TV에서만 보던 개그맨을 실제로 보며 아이가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년째 지속되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동안 동물원·김현철·이기찬 등 많은 출연진과 함께 많은 환우 및 가족들에게 위안과 사랑을 전달해왔다.



## 동부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 병원 자위소방대, 가상화재 대비 훈련



2월 6일 오후 2시 병원 출입구와 31병동 일대에서 가상화재를 대비한 화재 발생 대비 훈련을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체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올해 1월에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사고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대형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자위소방대와 동부소방서 100여명이 합동으로 대형화재 예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정확한 원내 방송 및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맞춤형 대피방법 등을 집중 점검했고, 병원과 소방서의 유기적 역할 분담으로 안전관리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최근 화재사건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집중됐으며, 거동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성별과 나이대에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만큼 이번 훈련은 산부인과 병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초기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할 소화전과 완강기 사용방법 숙지는 물론 환자 위험군에 따른 대피 요령등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동부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및 다양한 사고 대비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안전관리 분야에 있어 조선대병원이 지역의 모범 병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총괄한 김진호 부원장은 "화재 사건 발생 시, 초기 진압을 목표로 모든 교직원이 평상시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 안전한 사고는 지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원아들, 고사리 손으로 세배 인사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원생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세배 인사와 직접 만든 쿠키를 준비하여 2월 13일 병원을 방문했다. 다소곳하게 한복을 입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세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배학연 병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밝은 세배를 받아 건강하고 2018년이 될 것 같다"며 "홍콩한 사람이 되어라"고 세배를 한 아이들에게 덕담과 함께 복주머니를 건넸다.

2014년 8월말 문을 연 '조선대학교 어린이집'은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대학교 및 외부 일반인의 육아부담 완화, 근로 환경 개선,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단에 팸투어 실시



1월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방문한 현지 에이전시 및 의료진, 방송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배학연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환영식을 받았다.

이후 병원소개와 함께 인공지능암센터, 하이브리드혈관센터, MRI촬영실, PET-CT센터 등 곳곳을 둘러보며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진의료시스템에 연신 감탄했다.

율리안나 포즈넴코바(FALCK병원 대표이사)는 "조선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의료장비 및 선진의료시스템에 매우 놀랐다"며 "특히 왓슨폰콜로지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은 한국의 암 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러시아 내 의료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송사 취재지원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우수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이다.

## 몽골 민족대학교 이사장단 방문



1월 9일과 1월 10일 몽골 민족대학교 이사장 일행이 방문했다.

1월 9일 방문은 조선대병원 간호부와의 만남이 진행됐으며, 10일은 병원장 및 집행부와의 만남을 통해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하나인 '몽골 간호학 및 보건복지전공 교육 역량 강화 및 위약제출 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문으로, 몽골 민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및 사업단 일행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대병원의 간호시스템과 주요 병동



및 IBM왓슨폰콜로지를 이용한 호남최초의 인공지능암센터를 방문하여 수준 높은 의료체계를 경험했다.

또한 몽골 민족대학교 몽호바트(MUNKHBAT) 이사장과 배학연 병원장의 만남에서 민족대학부속병원의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배학연 병원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몽골 연수 전임의 수료식 진행



2월 8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몽골 연수 전임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료하게 된 아무르(Khorolgarav Amartuvshin)와 하쉬(Batmunkh Khashchuluun)는 흉부외과에서 각각 2년과 1년간의 연수교육을 수료했으며, 한형거르(Amarsaikhan Khankhongor)는 비뇨의학과에서 1년 동안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비뇨의학과 임동훈 교수와 흉부외과 서홍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외래

는 물론 입원환자 회진 및 수술참여 등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소화했다.

아무르 흉부외과 연수생은 "2년동안 교육과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수님과 진료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이곳에서 받은 교육을 밑바탕으로 자국에 돌아가서 의학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2018년 진료과장 및 센터장 임명장 수여식

관절센터장  
문영래 교수뇌신경치해센터장·신경과장  
김후원 교수뇌졸중센터장  
안성환 교수내분비내과장  
김상용 교수방사선종양학과장  
장지연 교수비뇨의학과장  
임동훈 교수안과장  
고재웅 교수

1월 17일 하중현홀에서 2018년도 임상진료과 과장 및 센터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식에는 병원장 이하 집행부 및 각 진료과장들이 참석하여 직책 임명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새로 직책에 임명된 교수는 총 7명으로 2018년 1월부터 임명되어 최상의 진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018년 2월 신규 입사자 임명장 수여식



2월 6일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2월 신규 입사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식에는 배학연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각 부서 팀장들이 참석하여 신규 직원을 환영하고 '줄탁동시(倅喲同時)'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줄탁동시(倅喲同時) : 알 안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뜨리려는 노력과 알 바깥에서 어미닭이 알을 깨뜨려주려는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스승과 제자의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

이번 신규 직원은 총 7명이 임명됐다.

### ○ 신규 임용자(2월 1일) - 7명

- ▲ 간호사 4명(가나다 순)  
(박다비, 전수향, 정소희, 최지영)
- ▲ 응급구조사 3명(가나다 순)  
(구종호, 김동현, 임형인)

## 신규간호사 예비 직무교육 실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김동국홀에서 90여명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예비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예비 직무교육에서는 병원 근무 시 필요한 의료적인 이론과 간호업무흐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환자안전에 관한 감염관리의 예방 및 관리, 심정지 환자를 위한 CPR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여러 직종이 어울려 근무하는 병원의 특성상, 환자 만족을 위한 직종간 상생을 주제로 조직문화 구축은 물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기정숙 간호부장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책임감 있는 간호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 교직원들의 이해와 배려를 요한다"며 신규간호사의 앞날을 기원했다.



## 안과 고재웅 교수, KJO 우수 심사위원상 수상



안과 고재웅 교수

안과 고재웅 교수가 최근 대한안과학회 영문학술지위원회에서 The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KJO) 우수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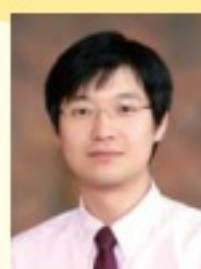
대한안과학회 영문학술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성실히 논문 심사에 임해 준 심사위원에게 우수 심사위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고재웅 교수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논문들을 성실히 심사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이와 같이 수상했다.





의료  
칼럼

# 환절기에 더욱 심해지는 지루성피부염 주의



조선대학교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

요즘처럼 건조해지면 피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급격한 온도차이는 피부 균형이 쉽게 깨지며,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난히 몸을 긁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띈다. 대인관계를 기피할 정도로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만큼 초기에 원인을 찾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인** : 피부 건조증은 예년에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노년층에서 주로 생겼으나, 요즘에는 과도한 실내 난방과 건조한 실내 환경, 전기담요, 잘못된 목욕 습관들로 인해 청·장년층에도 피부 건조증이 늘고 있고, 드물게 내과적 질환으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등의 호르몬 이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려움증을 동반한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건조한 가을 및 겨울철에는 피부의 수분을 주위로 뺏겨 피부가 더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요즈음 같이 갑자기 추운 계절이 되면 중년층에서 온천이나 사우나, 뜨거운 물에 목욕을 자주 하시는데 여기에 세정력이 강한 비누와 함께 때를 밀게 된다. 흔히 목욕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도한 비누 사용 및 때를 자주 미는 습관은 피부 각질이 벗겨지며 목욕 후 급격히 수분 손실을 일으켜 가려움이 유발된다.

더욱 복합적인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피지 과다분비,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루성피부염과 함께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안면홍조가 꼽힌다. 안면홍조는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극적인 음식, 알코올, 스테로이드 연고의 남용, 자외선, 여드름, 폐경 등에 의해 유발된다.

이렇게 생긴 홍조는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씨, 찬바람 등 환경 변화가 심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10월 말~11월 환절기 철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 **치료** : 치료 방법으로 피부에 수분을 증가 시켜주는 생활습관의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루 종일 일과에 바쁘다 보니, 일상에서는 충분치 않은 수면시간, 바르지 못한 식습관, 부족한 운동량 탓에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이때 면역력이 약화되면 신체 불균형을 피부에 발현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의 기본적인 관리,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적이며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자극 물질 혹은 원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파악하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치료는 국소치료(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전신치료(증상이 심하고 쉽게 재발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국소치료는 냉습포요법, 국소 스테로이드 등이 있다. 전신치료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전신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이 있다.

또한 각종 피부질환이 악화된다는 것은 곧 피부에 열이 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루성피부염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피부열을 조절하는 것으로,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건조한 날씨, 잦은 온도 및 바람의 변화 등의 환경변화가 피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외선은 피부를 붉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좋으며,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삼가고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고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좋다.

▲ **예방법** : 가려움증은 건조한 계절에 더욱 심해지는데, 평소 충분한 보습제 사용과 수분섭취 등의 관리가 중요하며 가려움이 심할 때는 긁는 것보다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우나, 때를 미는 등의 무리한 자극은 피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며 건조한 실내 온도 및 습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여 쾌적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가습기가 없을 때에는 실내에 젖은 빨래를 널거나 물수건을 놓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커피·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음주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고,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 질 수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 ☺ 2017년 4분기 손 위생 우수직원

최우수상



신경외과 김종규



특수부서간호팀 김은주



방사선종양학팀 우종신



우수상



이비인후과 박운식



교육연구부 장보현



병동간호1팀 김혜림



병동간호2팀 양혜옥



병동간호2팀 이재방

### ☺ 2018년 1차 스마일 교직원 및 부서

스마일  
교직원

신경외과 전용준



72병동 이세미



외래간호팀 박미랑

스마일  
부서

감염내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휴먼 네트워크  
CU Again 7만2천

여러분이 **건학 100년**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CU Again  
7만2천  
병원 직원 7만2천명



조선대학교병원 72 www.chosun.ac.kr  
CU Again 7만2천 72  
72만 명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 **혜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여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